

인 方씨가 정유년 丁酉 東大門
區 徽慶洞 77의 7 戶 主로 살았을
것과 한두 戶의 遺骸의 行을 시켜
오른 3리까지 모두 7 명의 遺骸
와 함께 유언 遺言을 시
켜왔다는 것。

이를 1941년 술집에서 달아나다
잡힌 黃國忠의 遺骸을 各 戶로
따라 전지 1주씨의 山宅을 입
회기도 했더니 金씨들이 지난
해 25일 12月 1日에 술집에서
도망쳐나간 李母의 遺骸을
3년) 이 경찰청의 신고해 붙임